

광주시·전남도, 코로나 19 방역 체계 강화

광주, 자원봉사자·공무원 3일간 3697개 다중이용시설 방역 전남, 복지시설 578곳 공무원 1대1...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에 맞서 광주·전남 방역당국 대응도 진화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3697개 다중이용시설을 3일에 걸쳐 일제 방역하기로 결정했고, 전남은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회복지시설 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증상자 여부를 매일 확인하는 시스템을 최근 갖췄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속속 등장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는 벌써 8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시민, 군인도 방역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대비해 광주 전역에서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방역이 이뤄진다.

광주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범시민 일제 방역을 한다. 터미널, 지하철역, 전통시장, 종교시설, 복지시설 등 3697곳이 대상이다.

일제 방역에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사·자치구 공무원 2100여명, 시민단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3600여명, 유관기관 관계자, 군인 등 모두 7000여명이 투입된다.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10~20명씩

팀을 이뤄 분무기 2800여개를 이용해 소독 약제를 분사한다.

전남지역도 방역은 뒤지지 않는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이날 현재 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여수·광양·담양·구례·해남·영암·완도·진도가 보건소 또는 지역 거점에서 1~2개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오는 6일에는 무안에도 들어선다.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 첫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들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남 시·군의 빠른 대응이 더욱 주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차에 탄 상태에서 문진표 작성부터 체온측정, 의사 진료, 검체

채취가 이뤄진다"며 "검사 시간도 10분 이내고 검사 대상자의 신분 노출도 방지할 수 있어 호응이 있다"고 전했다.

집단감염 취약지인 사회복지시설 578곳을 공무원이 1대1로 마크하는 전담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양로원·요양원 326개소, 장애인 시설 67개소, 아동시설 62개소, 요양병원 88개소, 여성·노숙인·청소년 시설 등 35개소가 대상이다. 시·군 팀장급 공무원(6급)이 각자 맡은 시설에서 발열 등 증상자가 나타나는지,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외부인 출입 제한을 적절히 하는지 등을 매일 같이 확인하도록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20억 들여 중기 스마트공장 지원 추진 총사업비 20% 범위 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광주시는 올해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공장을 신축하거나 고도화하는데 지원된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5억원보다 4배 늘어난 총 20억원으로, 지원금과 지원 비율도 확대됐다. 지원금은 지난해 광주시가 지정 한 명품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

원사업인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도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테크노파크 위탁)과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수행기관 미정)으로 구분된다.

광주시는 정부(중기부) 사업에 선정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담(총 사업비의 50%)을 덜어주기 위해 총사업비의 20%(최대 4000만원)를 매칭해 지원한다. 정부 주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0% ▲기업 부담 30%이며, 민간 주도 대중소 상생형 지원사업은 ▲국비 30% ▲대기업 30% ▲시비 10% ▲기업 30% 부담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 함께 이겨 냅시다" 2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가 청사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함께 이겨내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상임감사 공개 모집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상임감사(임원급)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도시철도공사의 감사 업무는 비상임이 맡아 왔다.

올해 임직원 5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비상임이던 것을 상임으로 바꿨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명시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서는 2일부터 17일까지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방문 또는 등기로 보내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초경량 차체새시 개발사업 '성과'

300억 들여 기업 연구개발 지원 매출 557억·일자리 176명 효과

광주시가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초경량 차체새시 부품기술 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초경량 차체새시 부품기술 개발사업'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초경량 차체새시 부품기술 개발사업'은 지역 차체새시 산업을 경쟁력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생태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추진결과 현재까지 매출 557억원, 수출 40억원, 일자리 창출 176명, 지식재산권 45건 출원 등의 성과를 거두며 기업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시켰다.

광주시는 그동안 소재분석, 설계해석, 부품 시제작 및 성능평가 장비 23대를 구축하고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고연비 자동차 구현의 필수기술인 차체새시 경쟁력에 나서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호원'은 호남권 기업 최초로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선정됐으며, '협성오토텍'은 현대자동차 아산-울산공장에 거래선을 확대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확보했다.

'현대하이텍'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통해 쏘울 전기차 카울 부품 양산화를 달성했으며, 자동차 트루프모듈 수주로 매년 1만1000대 규모의 신규 매출을 창출하는 등 기술력 향상을 통한 매출 확대를 이뤘다.

광주시는 최근 완성차 생산량 정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매출 확대 성과가 향후 기업활동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용소방대원도 마스크 만들기 힘 보탠다

제조업체 화재예방·순찰 실시 인력 지원 요청 뎀 소방대 투입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의용소방대원들까지 마스크 만들기 힘 보태기로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3일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소방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매일 1회씩 마스크 제조공장에 대한 화재예방 순찰과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생

산성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조공장에서 인력 지원 요청 시 전남 의용소방대원들을 투입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을 희망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전남 소방본부 대응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마재은 전남소방본부장은 "전남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소방은 지난 2일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가동 중인 도내 마스크 업체의 화재 예방을 위해 기계 과열, 부주의 등 화재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역 화훼농가 돕기 나섰다

'1테이블 1플라워' 등 꽃 사주기 기관단체 등 동참 당부

전남도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꽃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자 기관단체 등 꽃 사주기를 권장하고 소비촉진 운동에 나서는 등 전남지역 화훼 농가 돕기에 나섰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초 급락했던 장미 등 꽃 가격이 2월 중순 이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된 추세였으나 최근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돼 다시 하락 반전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시·군과 유관기관단체 등에 꽃 사주기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다시 요청, '1테이블 1플라워'와 '꽃 사주기 운동' 등 소비촉진에 적극적으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6일 '플라워데이'에 전남도청 운선체들의 꽃 사주기를 권장하고 소비촉진 운동에 나서는 등 전남지역 화훼 농가 돕기에 나섰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시·군, 농협 등과 꽃 소비촉진에 나서 장미 등 7100여만원의 꽃을 구매해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어준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